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1월 4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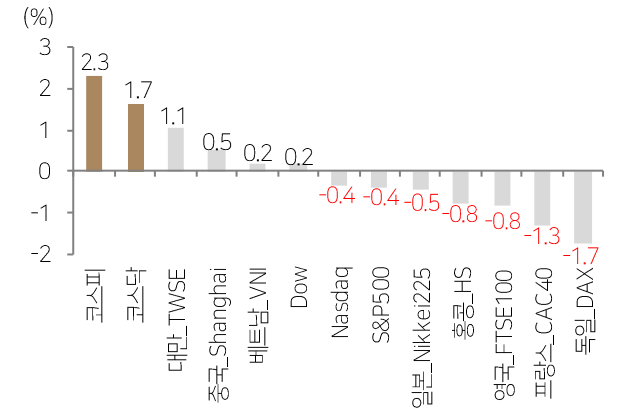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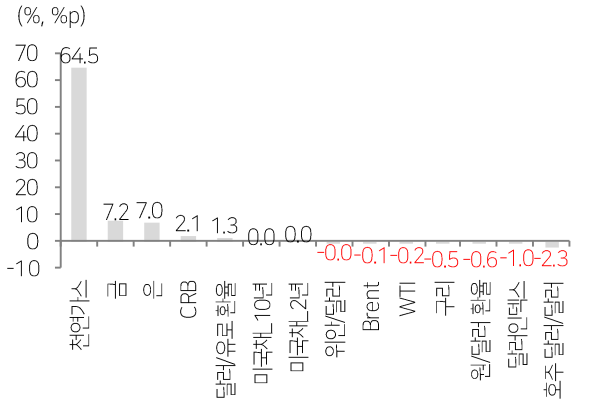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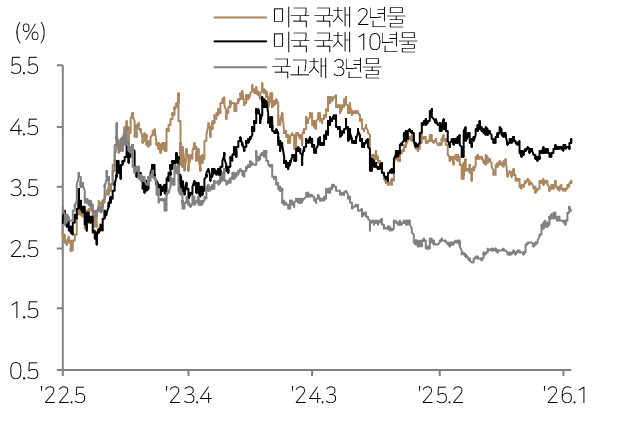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16일 대비 1/22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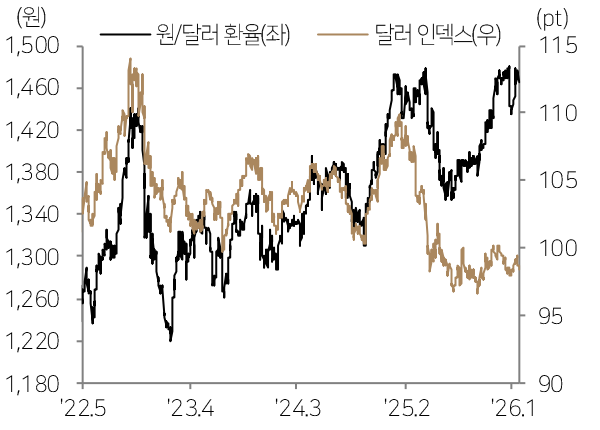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16일 대비 1/22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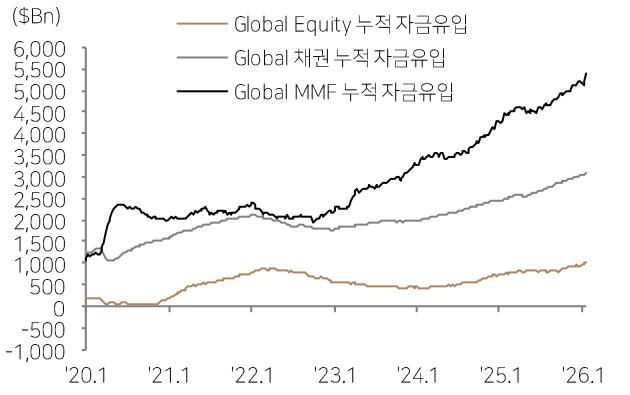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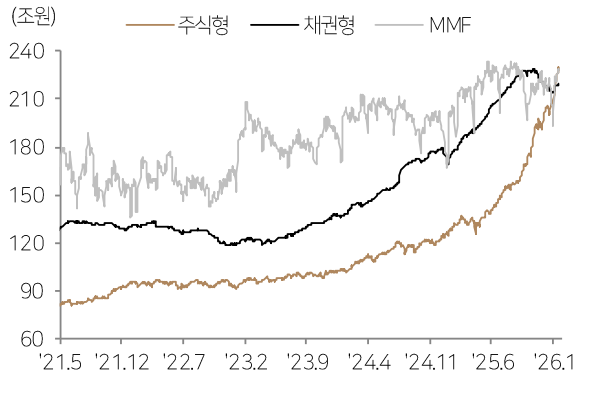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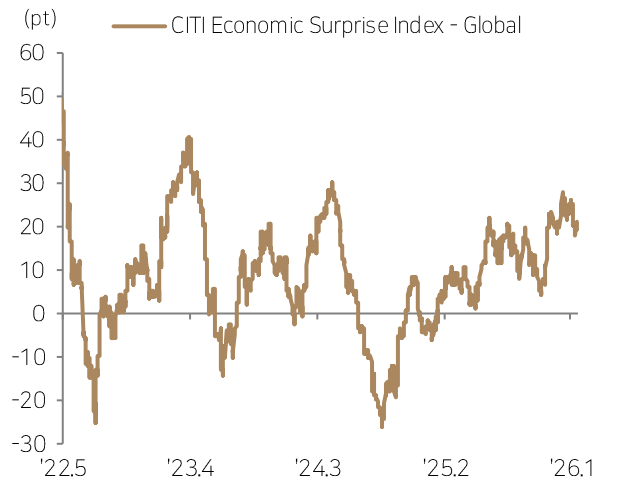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달 급락한 바 있음. 경험적으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컨퍼런스보드 신뢰지수 간의 스프레드 축소는 실업률 상승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상대적으로 컨퍼런스보드 지수가 고용시장에 대한 심리지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뒤늦게 급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일단 컨센서스는 하락 추세 일단락으로 전망 중
- 30일 미국 12월 PPI가 발표될 예정. 1월 중 발표된 11월 PPI는 전년 비 +3.0% 증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음. 당시 지정학적 이슈와 연준 의장 후임 관련 이슈 등으로 크게 주목 받지는 않았으나, 직전 달에 비해 증가율이 상승. 생산 단에서 물가 상승이 가시화 될 경우 소비 물가에 대한 우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1-26	미국	11월(잠정) 내구재 주문	%mom	3.0	-2.2
2026-01-27	미국	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활동지수	Index	-	-10.9
2026-01-27	미국	11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	0.4
2026-01-28	미국	1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Index	-	-7
2026-01-28	미국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Index	90.0	89.1
2026-01-29	미국	11월 무역수지	억달러	-450	-294
2026-01-30	미국	11월 제조업수주	%mom	-	-1.3
2026-01-30	미국	11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	-
2026-01-30	미국	11월(최종) 도매 재고	%mom	-	0.2
2026-01-30	미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0.3	0.2
2026-01-30	미국	1월 MNI 시카고 PMI	Index	44.0	42.7
2026-01-30	일본	1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yoy	1.8	2.0
2026-01-30	유럽	4분기 1차 경제성장률	%qoq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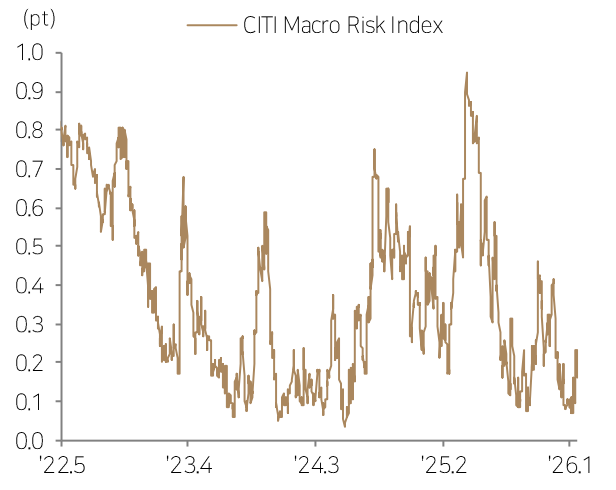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01/27 ~28	미국	상	FOMC	▪ 연준은 12월 FOMC에서 25bp 인하를 단행하며 총 75bp의 인하를 진행. 연말/연초 확인되고 있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연속적인 인하보다는 신중론이 다소 우위. CME Fedwatch에서 추정하는 금리 인하 확률도 4월 FOMC까지 동결 후 6월에나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기존 회의들에서 파월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는 일회성이고, 1분기 전후에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미 세 차례 예방적 인하를 단행한 만큼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가늠을 이유로, 금리 인하 기조를 연장시키는 형태의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01/30	미국	상	임시 예산안 효력 만료	▪ 미국은 현재 임시 예산안(CR)이 적용 중. CR의 효력은 1월 30일까지로 주요 쟁점 사안(보건복지, 이민집행 관련)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탓에 추가 셧다운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주 현지 언론에 의하면, 상/하원 협상단이 대부분의 예산안에 초당적 합의에 도달, 셧다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으로 파악
1/31	미국	상	스티븐 미란 연준 위원 임기 만료	▪ 9월부터 연준 이사직을 수행했던 미란의 임기가 1월 말 만료. 이후 해당 자리에 대한 지명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관심 사안이며, 시장 기대와 같이 비둘기파 성향의 인물이 대두될 경우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될 수 있음. 트럼프 친화적 이사 선임 및 연준 독립성에 대한 개입 정도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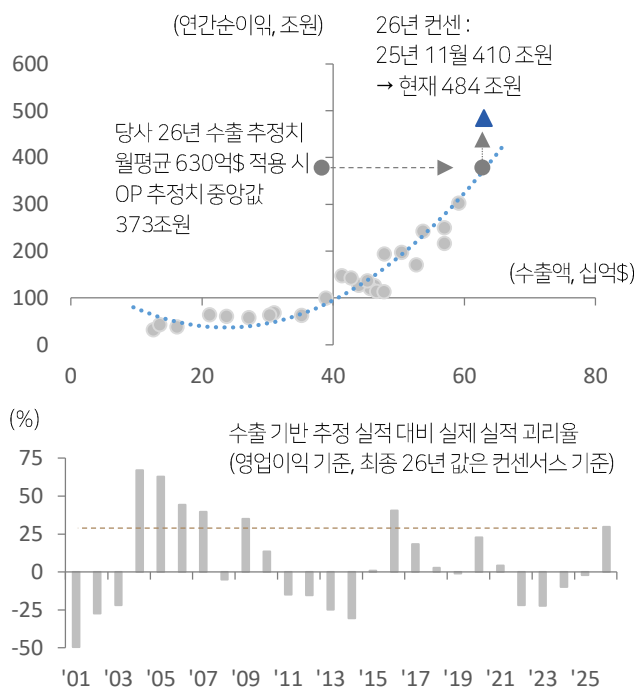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1/19~01/22) 증시 동향	▪ KOSPI(+2.3%), KOSDAQ(+1.7%) 상승. KOSPI는 IT가전(+17.2%), 자동차(+15.4%), 화학(+8.3%)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건강관리(-3.1%), 기계(-2.1%), IT하드웨어(-1.7%) 업종 하락. 주초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 발언에 약세 출발했으나, 로봇 사업 기대감에 자동차/로봇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반등. 이후 미국의 대유럽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보스턴다이내믹스 IPO 추진 등 소식에 4,900선을 회복. 주 후반 지정학적 긴장 완화 속 반도체와 2차전지 강세에 힘입어 장중 5,000선을 상회 ▪ DOW(+0.2%) 상승, NASDAQ(-0.4%), S&P500(-0.4%) 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대유럽 관세 위협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국채 금리 급등과 함께 약세 출발. 그러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관세 위협 철회 및 대화 해결 의지가 확인되자 '셀 아메리카' 우려가 완화되고, 인텔·AMD 등 서버 CPU 공급 부족 등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며 매수세 유입에 반등
차주 (01/26~01/30) 증시 전망	▪ 전일 장중 상징적 라운드 넘버인 5,000pt를 경험. 상징적인 목표 지수 달성이라는 정성적 측면도 있지만, 1월 상승률만 +17%를 넘어설 정도로 빠른 상승국면이 전개된 만큼 기술적 지표들로 표현되는 부담은 심화된 상태. 그러나 이익 전망치의 상향조정이 지수의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국면인 만큼 부담해소 국면이 나타난다 해도 깊은 가격조정 우려는 제한적 ▪ 다음주 미 연준 FOMC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나, 아직 인하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시장의 전망이 이미 일시 동결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1월 동결 자체가 큰 부담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1차적 관심은 주요 테크기업들의 실적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2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 주도주의 기술적 부담, 연초 내수 경기의 반등 기대 등이 소비재 및 소형주 쪽으로의 순환매를 야기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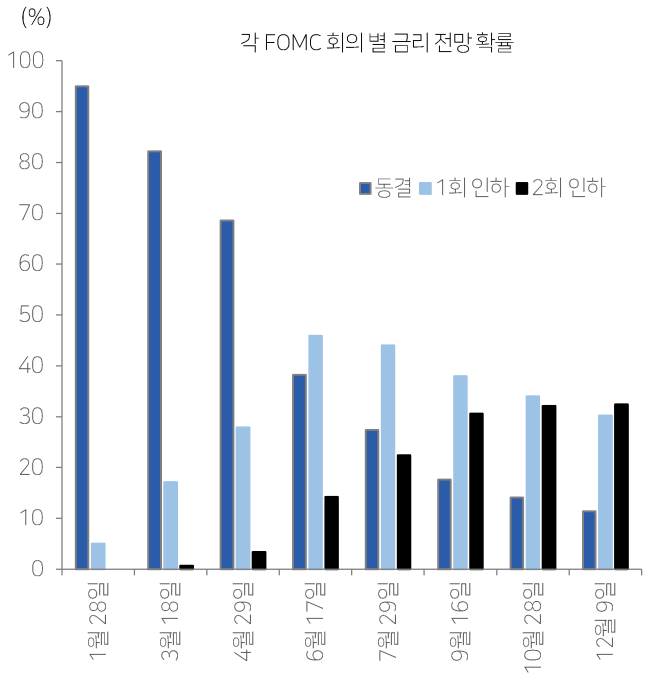
가파르게 상향되는 이익전망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Source: Quantiwise, 다올투자증권

- 가파른 속도로 지수가 5,000pt에 도달했음에도 그 이상 이익전망의 빠른 개선이 수반되어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음. 기존 자료에서 상반기 양호한 수출과 함께 추가 이익전망치 상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연말/연초 이례적으로 빠른 상향이 진행된 만큼 추가 상향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
- 전일 KOSPI 영업이익 추정치는 484조원. 한국 기업 이익은 수출과 절대적 상관성이 있으며, 당사는 26년 수출 연간 증가율을 약 6%대로 추정(월평균 금액 기준 약 630억$). 이를 기준으로 26년 영업이익을 추정해 보면, 현 컨센서스는 수출 기준 중앙값(373조원)보다 +29% 높은 수준. 괴리가 꽤 커보이나, 이는 2000년 이후 플러스 괴리율이 발생했던 구간의 평균 수준. 고환율이나 저유가 여건이 뒷받침 될 경우 40% 이상 괴리율이 확대된 경우도 다수 찾아볼 수 있음. 이 같은 괴리율을 대입한다면 지금보다 +37조원의 초과 이익을 상정할 수 있음. 비교 차원에서 보면, 현재 형성된 삼성전자+하이닉스 실적 전망치의 상단은 컨센서스 대비 약 65조원 높음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꽤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



Source: CME Fedwatch, 다올투자증권

- 다음 주 FOMC가 예정되어 있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미 연준의 예방적 인하라는 정책 틀은 보통 100bp 내외에서 금리 인하를 중단.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인하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금리 인하 국면 마무리에 대한 인식으로 받아들여 질 개연성이 있음
- 때문에 금리인하 카드를 소진하기 보다는 인하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도구 도입 시점까지 현 국면을 연장 시키는 것이 시장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이미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거의 사라진 양상. CME의 각 회의 별 확률 분포를 보면, 1월 동결은 95% 확률로 전망되고 있으며, 6월에서야 추가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음. 1월 금리 동결이 결정된다 해도 이미 현 시점의 가격에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